선악과 먹은 삶, 십자가 먹는 삶

(갈3:1~15)

1.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선악과 먹은 삶, 십자가 먹는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선악과 먹은 삶, 십자가 먹는 삶!

여러분, 속담 중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뜻을 다 잘 알지요.
이 말이 거기서 곧바로 유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덕경 6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몇 아름이나 되는 거목도 털끝 같은 움에서 자란 것이요, 아주 높은 건물도 한 삼태기 흙에서 쌓아 올인 것이요, 천리 길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것이다'
이거 뭐 이의가 있을 수가 없는 정말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천리 길이 상징하는 것은 아마 우리 인생의 소원하고 꿈꾸는 위대한 성공을

말하는 걸 거예요.
정말 그럴듯한 인생의 어떤 경지, 인생의 상태, 우리가 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바람직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일 것이고, 어떠한 위대한 인생의 꿈이라도 결국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 되고 성취가 되려면, 바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딤으로써 성공으로 향한 길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지당한 말입니다.
몇 아름 되는, 정말 굵기가 한 열 사람이 팔을 벌리고 둘러서야 겨우 둘러쌀 수 있는 그런 아름드리 하늘을 찌르는 나무도 조그마한 움이 트고 싹이 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너무 지당하고 맞는 말씀이지요.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단어 하나를 더 외우는 거예요.
재벌이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한 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모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맙시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이 귀중한, 정말 보편적으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 격언은,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행위주의의 신념 위에 서 있습니다.
행위주의!
이런 말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문제가 되는 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 율법주의는 유대나라의 행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념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다른 이방세계에서도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신념체계가, 유대나라에서는 율법주의로 나타나고 있고, 이 율법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신념체계를 우리는 행위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가 뭔가를 알면 되지요.
율법주의가 뭐에요? 내가 율법을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주의라 그러면, 행위주의는 '내가 행위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 내가 가장 소원하고 꿈꾸고 있는 행복한 경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주의.

여러분, 행위주의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이 신념은 잘못 된 게 없어요, 그렇죠?
아니, 성공을 꿈꾸면 행동해야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절대, 절대 안 됩니다.
다시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실천해야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바라는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모~든 어떠한 성공도 참 성공일 수가 없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이루기 전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같이 느껴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루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나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하늘과 땅과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맞춤 형태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하나님께 맞게 되어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마음 사이즈를 안으로 들여보내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이 건희 씨 인터뷰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행복과 진짜 만족을 느끼십니까?
만족을 못 느끼니까 계속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죠.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만족을 느낀다 그러면 전 단언할 수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야~ 이거 순 억지이다.
억지라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억지라고 느껴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마음의 사이즈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서 마음이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유일한 성공입니다.
돈 버는 건 성공 아니에요, 성공으로 착각하는 거지.
서울대 들어가는 거 성공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성공 아니에요,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성공 아닙니다.
행복도 있을 수도 없고 다 착각이에요.

오직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가 성공인데,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합하게 된다는 참 성공인 이 천리 길은 절대 한 걸음이라도 떼어선 안 됩니다.
첫 번째 걸음을 떼기 이전에, 첫 번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성공을 향한 나의 실천의 첫 단계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참 성공은, 행위 이전에 완성 되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은 반드시 행위 이전의 성공이 쟁취되어야 되고, 성공을 안고 비로소 첫 번째 행동 두 번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성공 뒤에 나오는 행위는, 더 이상 성공을 향해가는 행위가 아니라, 성공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요, 이걸 우리는 요즘 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춤, 춤추는 것입니다.
성공에서 나오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춤으로 표현되는 것이 행위라 이겁니다.
선교를 합니까? 그거 춤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합한 성공으로부터 나오는 춤이, 선교로도 나오고, 봉사로도 나오고, 순교로도 나오고, 직장생활로도 나오고, 가정생활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학생생활로도 나오는 것이고.
학생생활을 통해서 성공을 도달하는 게 아니고, 직장생활을 통해서 안정된 삶으로 도달하는 성공적인 직장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미 마음이 하나님과 만남으로서 마음이 완전히 만족해지고, 왜냐하면 마음사이즈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어떤 것을 이루어도 마음사이즈에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얻는 것,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절대로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 이전에 마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음으로써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성공인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이 믿음으로 가능한 성공은 첫 번째 행위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행복해지려 하고 성공에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삶의 태도는 율법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행위주의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제목에 해당되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속해서 십자가를 먹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가, 전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이미 50여 년 전에 유대 땅 갈보리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 자체는 역사 속으로 묻혀버린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입니다.

근데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의 특징이 뭡니까?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신앙의 사건이 되면서, 아니면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루에도 몇 번씩, 몇 십 번씩 재현되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 앞에서 재현되는 동안에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역사가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건이 그들의 마음의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단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내 마음 안에서 '아! 지금 주님이 죽으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저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재현될 때에, 십자가의 역사적 사건은 복음사건이 되는 겁니다, 재현될 때, 재현 될 때.

그래서 율법주의, 행위주의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이탈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이, 지금 여기서 내 앞에서 전개되는 사건으로 재현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모~든 이단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정통교단 안에서도 사실은 이단적 사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단적 사상이 다~ 뭐냐 하면, 율법주위도 지금 갈라디아교회에 들어왔지마는 이단사상 아닙니까?
그 이단사상의 뿌리가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 주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지금 내 앞에서 전개되는 사건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재현되는 사건으로 바라보며 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선악과나무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관을 지어서 비교해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선악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 포인트는, 에덴동산 기쁨의 동산에 선악과가 있게 된 것은 기쁨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점이에요.
기쁨이라는 건 어떨 때 생겨요? 마음이 만족할 때 생깁니다.
자! 기쁨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악과가 에덴에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 선악과의 의미가 뭡니까?
절대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세워진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악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선악과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어떤 상태에서 세워졌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로 살고 있는데,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에덴에서 선악과가 세워질 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선악과가 세워졌는데, 이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판단을 토해내라고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에덴동산의 선악과는 판단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하지 말라고 세워진 거고, 십자가는 우리가 판단을 지금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이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마음이 받아들여 버립니다.
돈이 좋다, 출세가 좋다, 권력이 좋다, 좋다고 느끼는 것이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마음이 받아들인 거예요.
좋다고 느낌과 동시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
돈이 왜 좋습니까? 누가 돈이 좋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돈이 좋다고 그런 거예요, 마귀가.
건강해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좋습니까?
누가 좋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좋다 그래요.
마귀의 설교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업이 무조건 잘 되는 게 좋다고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잘되는 게 하나님 뜻일 수 있고, 못되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어느 게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잘되는 게 좋다고 받아들여 놓으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그 사장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이 되려면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세워 두시고,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로봇이지요, 판단할 수 있는데도 판단을 안 하는 자발적인 인격을 만드셔 놓고, 판단을 안 하게 하신 겁니다.
왜 판단을 안 해요?
판단을 안 해야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걸 받아들이고 나쁜 걸 뿌리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다~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선악과의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 동안에 하는 일이, 마음에 좋다고 생각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반드시 마음에 좋다는 것이 받아들여졌으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행위 하게 됩니다.
기도도 행위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행위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범죄 상태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건강하게 해 달라, 사업 잘되게 해 달라, 오래 살게 해 달라, 일이 잘되게 해 달라, 부흥하게 해 달라.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느껴졌잖아요? 이미 좋은 것이 느껴졌으면, 이미 틀린 겁니다.
이미 행위주의로 빠져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느껴지면,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느껴지는 이것을 토해내라고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선악의 판단이 생기는 그 순간을 죽여 버리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불러도 행위주의로 빠져 버립니다, 율법주의로 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기억해내서 딱 죽어버려요.
돈에 대해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멋진 차를 한 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생각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든 안 하든 단순히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라도, 그 순간에 곧바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절대 그런 소원을 마음에 그대로 묻어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좋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한 소원에, 마지막 머리털 끝만큼이라도 다~ 십자가로 재거해내고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따먹는 거예요,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날마다 주님의 죽음을 따먹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을 따먹는 게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찬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과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뗀다.
그걸, 사적으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마음에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져서, 요게 있었으면 좋겠고 가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날 때마다, 그거 지금 선악이 판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선악과 먹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요런 순간이 포착될 때마다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내 앞에서 재현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지 말자, 좋은 걸 생각하지 말자.
손에 못이 박히셨구나, 좋은 걸 얻겠다고 손을 대지 말자.
발에 못이 박히셨구나, 좋은 걸 얻겠다고 발로 뛰지 말자.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구나, 아! 좋은 걸 아예 소원하지를 말자, 이 세상을 향해 소원 자체를 없애자.
온 몸이 다 채찍에 맞아 찢기셨구나, 좋은 걸, 이 세상에서 좋다고 판단되는 걸 느끼려 하지 말자.
피부로 닿는 접촉, 느끼려 하지말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 사건의 주님의 죽으심을 먹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듯이 먹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만 먹으면, 내가 뭘 행동하기 이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라,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
이 모~든 행위 이전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요!
행위 이전에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음을 먹음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원래 하나

님께 맞게 사이즈가 만들어진 마음 안으로 하나님을 모셔 들여서,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꽉~ 찰 때 기쁨이 생겨요.
그 기쁨이 유지가 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따먹으면, 이 세상에 대한 판단이 죽어버리고, 좋다고 여겨지는 모든 소원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꽉~ 차게 되면,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면서,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고 내 머리가 움직여 갑니다.
춤추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춤을 추는 겁니다.
아빠와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아빠와 함께.
이게 복음의 삶, 이게 복음 아니에요? 기쁨의 소리 아닙니까?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행위주의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없애 버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행위주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자라고 하는, 행동함으로써 쟁취하자라고 하는 행위주의를 삶에서 없애버리면, 여러분 서점에 나가면 읽을 책이 없습니다.
뭐 책을 많이 읽는 게 좋다? 누가 그래요?
성경 하나면 돼요. 성경 하나면 돼.
그래서 성경을 지금 날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점에 있는 모~든 책이 다 행위주의에요, 거의 모든 책이.
객관적인 과학적인 지식에 관한 책이 아니면 모~든 책이 다 행위주의에 관한 책 아닙니까?
이거는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는 상태의 삶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에서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판단이 되고 소원이 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먹음으로써, 판단이 죽고 에덴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실 때에, 나는 춤추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 그 춤이 선교가 되고, 그 춤이 구제가 되고, 그 춤이 사업에 되고, 그 춤이 가정주부의 삶이 되고, 자녀 양육이 되고, 그 춤이 공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춤을 추면 추었지, 성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삶, 판단을 통해 행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고, 율법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 이전에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고, 성공한 자로서의 행위는 성공을 향한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성공의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춤을 땅에서 추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더 이상 선악과를 먹은 효과에 사로잡혀서 행위주위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가 재현됨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먹음으로써,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